

# 농업의 기업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2016. 11. 1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병원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KOREA EMPLOYERS FEDERATION

# 목 차

## □ 농업의 기업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I. 농업의 기업화

II. 한국 농업의 현실

III. 한국 경제의 현실

IV. 한국 농업 경쟁력 향상 방안

V. 결론 : 농업의 기업화의 진정한 의미

# I. 농업의 기업화

# 1. 농업의 기업화의 진의

---

-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04.6), 농업경쟁력 강화방안('09.1)
- "기업"에는 **개인, 조합, 법인 기업**을 모두 포함
  - 주식회사만 법인 기업이 아니며, 대기업만 법인 기업인 것도 아님.
- 농협의 경제사업부문 강화, 품목 조직화, 영농규모의 확대 등 다른 농정과제들을 모두 묶어서 표현한 것

## 2. 기업, 경영이란 무엇인가?

---

- 생산물 (재화,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기)업
- 어떤 질의 재화를 어떤 양에 얼마나 생산하면 다 팔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겠는가를 예측, 설계하는 것이 출발점
- 시장을 창조, 개척하고 생산물을 팔아 낼 수 있는 능력이 기업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 자본, 기술, 노동, 마케팅 능력(브랜드 파워 포함) 등을 결합하여 이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경영
- 각자는 자기가 제공한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는 것임. 토지와 노동만 가지고는 더 많이 벌 수가 없는 것임(농사와 농업).

## Ⅱ. 한국 농업의 현실

# 국제 경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한국농업

- 우리 농산물만으로는 결코 먹고 살 수가 없는 식량자급이 안 되는 나라

## <우리나라 곡물 소비 및 생산 추이>

(단위 : 천톤,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p)
<b>곡물총소비(A=B+C)</b>	8,825	12,596	16,282	19,961	19,939	<b>20,251</b>
사료용 外 소비(B)	8,241	10,124	9,981	10,676	10,196	<b>9,583</b>
사료용 소비(C)	584	2,472	6,301	9,285	9,743	<b>10,668</b>
<b>국내생산(D)</b>	7,097	7,048	7,013	5,931	5,511	<b>4,810</b>
<b>곡물자급률(D/A)</b>	80.4	56.0	43.1	29.7	27.6	<b>23.8</b>
<b>식량자급률(D/B)</b>	86.1	69.6	70.3	55.6	54.1	<b>50.2</b>

주 : 1. 곡물 자급률은 국내 총소비량 대비 국내생산량 비중이며, 식량자급률은 국내소비량(총소비에서 사료용 소비 제외) 대비 국내생산량 비중임.

2. 2015년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연도

# 국제 경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한국농업

## <전세계 곡물 소비 추이>

(단위 : 백만톤, %)

	1970	1980	1990	2000	2010
<b>곡물총소비</b>	1,229.9 (100.1)	1,651.3 (100.0)	1,946.4 (99.9)	2,172.0 (100.1)	2,610.8 (100.0)
<b>식용</b>	528.6 (43.0)	667.2 (40.4)	839.7 (43.1)	970.2 (44.7)	1,084.8 (41.6)
<b>사료용</b>	455.8 (37.1)	594.0 (36.0)	654.4 (33.6)	701.0 (32.3)	765.2 (29.3)
<b>기타</b>	245.5 (20.0)	390.1 (23.6)	452.4 (23.2)	500.8 (23.1)	760.8 (29.1)

주 : 1. 곡물은 FAO 기준에 따른 밀, 쌀, 보리, 옥수수, 호밀, 귀리, 기장, 사탕수수, 기타 곡물임.

2. 식용은 식용(food)과 식용가공(food manufacturing)을 합한 수치임. 기타는 식용과 사료용을 제외한 소비량임.

3. ()안은 곡물 총소비 대비 비중임.

자료 : UN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tatistics Data base, Food balance sheet



# 국제 경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한국농업

<전세계 주요 곡물 종류별 소비 추이>

(단위 : 백만톤, %)

	1970	1980	1990	2000	2010
<b>옥수수 총소비</b>	<b>305.7(100.0)</b>	<b>494.0(100.0)</b>	<b>556.1(100.0)</b>	<b>691.1(100.0)</b>	<b>965.8(100.0)</b>
식용	52.8(17.3)	73.2(14.8)	106.0(19.1)	130.8(18.9)	160.8(16.6)
사료용	196.6(64.3)	299.4(60.6)	301.8(54.3)	405.0(58.6)	470.3(48.7)
기타	56.3(18.4)	121.4(24.6)	148.3(26.7)	155.2(22.5)	334.7(34.7)
<b>밀 총소비</b>	<b>385.4(100.0)</b>	<b>532.8(100.0)</b>	<b>656.4(99.9)</b>	<b>728.1(100.0)</b>	<b>817.4(99.9)</b>
식용	208.9(54.2)	285.6(53.6)	357.2(54.4)	423.0(58.1)	451.5(55.2)
사료용	71.7(18.6)	86.1(16.2)	118.4(18.0)	101.1(13.9)	109.1(13.3)
기타	104.7(27.2)	161.2(30.2)	180.8(27.5)	204.0(28.0)	256.9(31.4)
<b>쌀 총소비</b>	<b>212.8(100.1)</b>	<b>272.5(100.0)</b>	<b>350.3(100.0)</b>	<b>418.5(100.0)</b>	<b>493.1(100.0)</b>
식용	173.2(81.4)	219.1(80.4)	285.5(81.5)	325.7(77.8)	370.7(75.2)
사료용	9.1(4.3)	13.4(4.9)	17.5(5.0)	26.7(6.4)	33.1(6.7)
기타	30.6(14.4)	40.1(14.7)	47.3(13.5)	66.1(15.8)	89.2(18.1)
<b>보리 총소비</b>	<b>134.4(100.0)</b>	<b>174.5(100.0)</b>	<b>190.7(100.0)</b>	<b>163.8(100.0)</b>	<b>168.1(99.9)</b>
식용	23.2(17.2)	25.6(14.7)	27.3(14.3)	28.8(17.6)	33.2(19.7)
사료용	84.6(63.0)	113.1(64.8)	120.3(63.1)	90.1(55.0)	86.3(51.3)
기타	26.6(19.8)	35.8(20.5)	43.2(22.6)	44.9(27.4)	48.6(28.9)

주 : 1. 식용은 식용(food)과 식용가공(food manufacturing)을 합한 수치임. 기타는 식용과 사료용을 제외한 소비량임.

2. ( )안은 곡물 종류별 총소비 대비 비중임.

자료 : UN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tatistics Data base, Food balance sheet

# 국제 경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한국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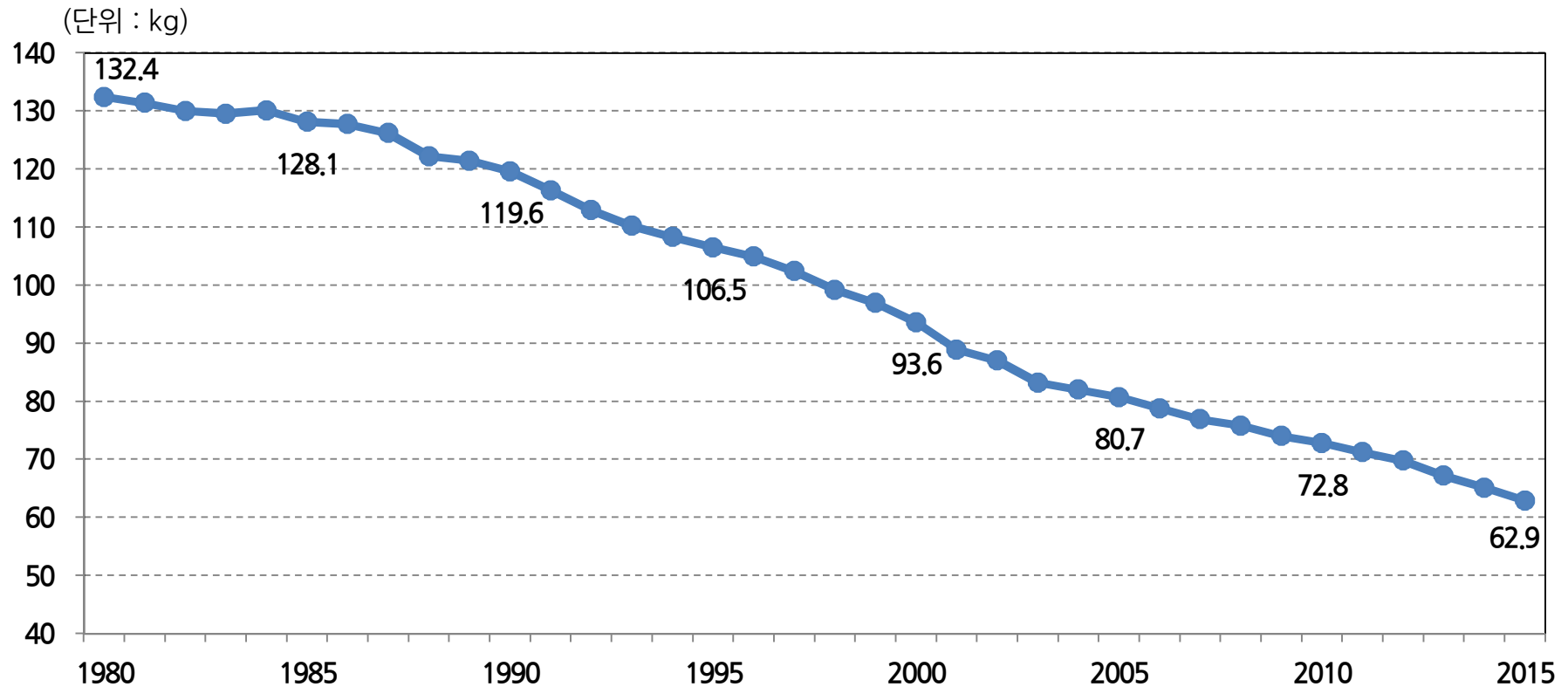
---

- 일부라도 먹거리를 수입하는 한, 식량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입에는 관세를 낮게 해 줄 수밖에 없는 한(할당관세), 그 만큼 국제경쟁에 노출
  -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먹거리는 상호 경쟁한다.”, “쌀이 쌀과만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인가를 수입하는 한 먹거리 간의 교차경쟁은 벌어진다.
- WTO, FTA가 아니었더라도 경쟁에 노출 : 그 이전에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 수입사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대규모화, 기업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있는 가격에 공급되는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가장 큰 대체재
  - 건강상의 이유로 더 많이 먹게 된 야채, 과일도 쌀의 수요를 잠식
-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없어도 버틸 수 있다는 미신을 버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 국제 경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한국농업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

132.4kg('80년) ⇒ 106.5kg('95년) ⇒ 62.9kg('15년)



자료 :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각년도

## Ⅲ. 한국 경제의 현실

# 총체적 공급과잉에 직면한 한국경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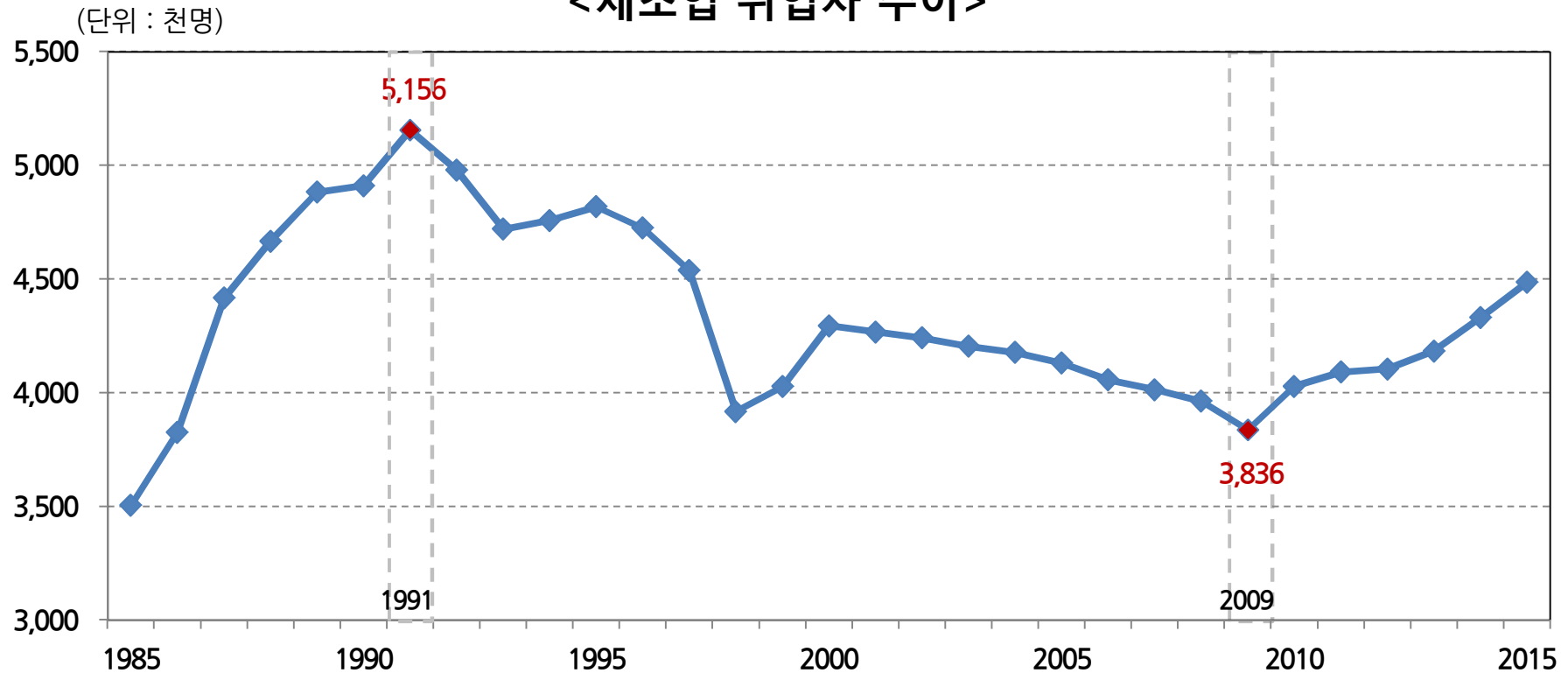
- 수요는 주로 젊은이들이 취직, 결혼,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
- 그러나 지금 한국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상황은 최악
  - 2016년 9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9.4%로 1999년 이후 최고치
  -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청년취업애로계층은 109만명('16.8월), 청년체감실업률 21.5%
  - 25~39세 인구 중 미혼자 비율 : 1980년 13.7% ⇒ 2010년 44.2%
- 부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내수 부진이 악순환의 고리 형성

# 총체적 공급과잉에 직면한 한국경제

## ● 1992년 이후 제조업은 일자리를 못 만들어

- 1992~2015년간 67만개(연평균 2.8만개) 감소
- 1992~2009년까지 132만개(연평균 7만개) 감소

<제조업 취업자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총체적 공급과잉에 직면한 한국경제

---

- 또한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도 벽에 부딪쳐
  - 일부 서비스업(자영업 중심의 소매업, 음식점, 운수업)은 지독한 공급과잉, 과당경쟁에 직면
  -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고급 서비스업(금융, 의료, 관광 등)은 농업 못지 않게 국제 경쟁력이 없어 일자리를 못 만들어
- 우리 경제는 이제 제조업 한 바퀴만으로는 굴러가기 어려워
- 서비스업과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국내 시장을 지키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해결 가능

## IV. 한국 농업 경쟁력 향상 방안



# 1. 우리 농업도 수출을 해야

---

## ■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기회 : 수출로 공급과잉을 해소해야

- 중국 시장 얼마나 큰가?  
: 매년 중국인 600만명씩 관광 오면 230년 걸려
- 중국 최상위 5% 부자들의 시장만 공략해도 700만명 시장
  - 고급 시장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시장보다 더 커
- **중국**은 **농산물 수입국**이다 : 중국에 농산물 수출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위치

# 1. 우리 농업도 수출을 해야

## <중국의 과일, 채소 수입 추이>

(단위 : 천톤, 백만불, 불 배)

	1970(a)	2000(b)	2013(c)	b/a	c/a	c/b
물량(천톤, ㉠)	733.4	3,939.2	15,706.3	5.4	21.4	4.0
금액(백만불, ㉡)	125.2	2,483.0	13,216.5			
㉡/㉠(톤/불)	170.7	630.3	841.5	3.7	4.9	1.3 <sup>(33.5%)</sup>

주 : ( )안은 2000년 대비 2013년 1톤당 금액의 증가율임. 즉 2000년 630.3불에서 2013년 841.5불로 33.5% 증가했다는 의미임.  
 자료 : UN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tatistics Data base

## <중국의 쌀 수입 추이>

(단위 : 천톤, 백만불, 불 배)

	1970(a)	2000(b)	2013(c)	b/a	c/a	c/b
물량(천톤, ㉠)	366.6	578.4	2,718.1	1.6 <sup>(57.8%)</sup>	7.4	4.7
금액(백만불, ㉡)	60.2	275.5	1,470.9	4.6	24.4	5.3
㉡/㉠(톤/불)	164.2	476.3	541.2	2.9	3.3	1.1 <sup>(13.6%)</sup>

주 : ( )안은 1970년 대비 2000년 쌀 수입물량, 2000년 대비 2013년 1톤당 금액의 증가율임. 쌀 수입물량은 1970년 대비 2000년에 57.8% 증가, 쌀 1톤당 금액은 2000년 대비 2013년 13.6% 증가했다는 의미임.  
 자료 : UN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tatistics Data base

# 1. 우리 농업도 수출을 해야

<2015년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품목(상위 10개)>

(단위 : 억불, %)

	수입금액 (비중)
<b>2015년 농산물 수입총액</b>	<b>1,159.2(100.0)</b>
유지류, 공업용 및 의약용 식물, 볏짚과 사료용 식물	397.5(34.3)
곡물	92.8(8.0)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제품	78.9(6.8)
수산물	63.2(5.5)
낙농제품, 조란, 벌꿀, 기타 식용 동물성 제품	62.0(5.4)
식용과일 및 견과류	60.1(5.2)
가축육 및 식용설육	58.7(5.1)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폐기물, 동물 배합사료	44.3(3.8)
음료, 주류 및 식초	42.8(3.7)
식용 채소	26.2(2.3)

자료 : 중국 상무부

## 2. 제조업의 성공요인을 벤치 마킹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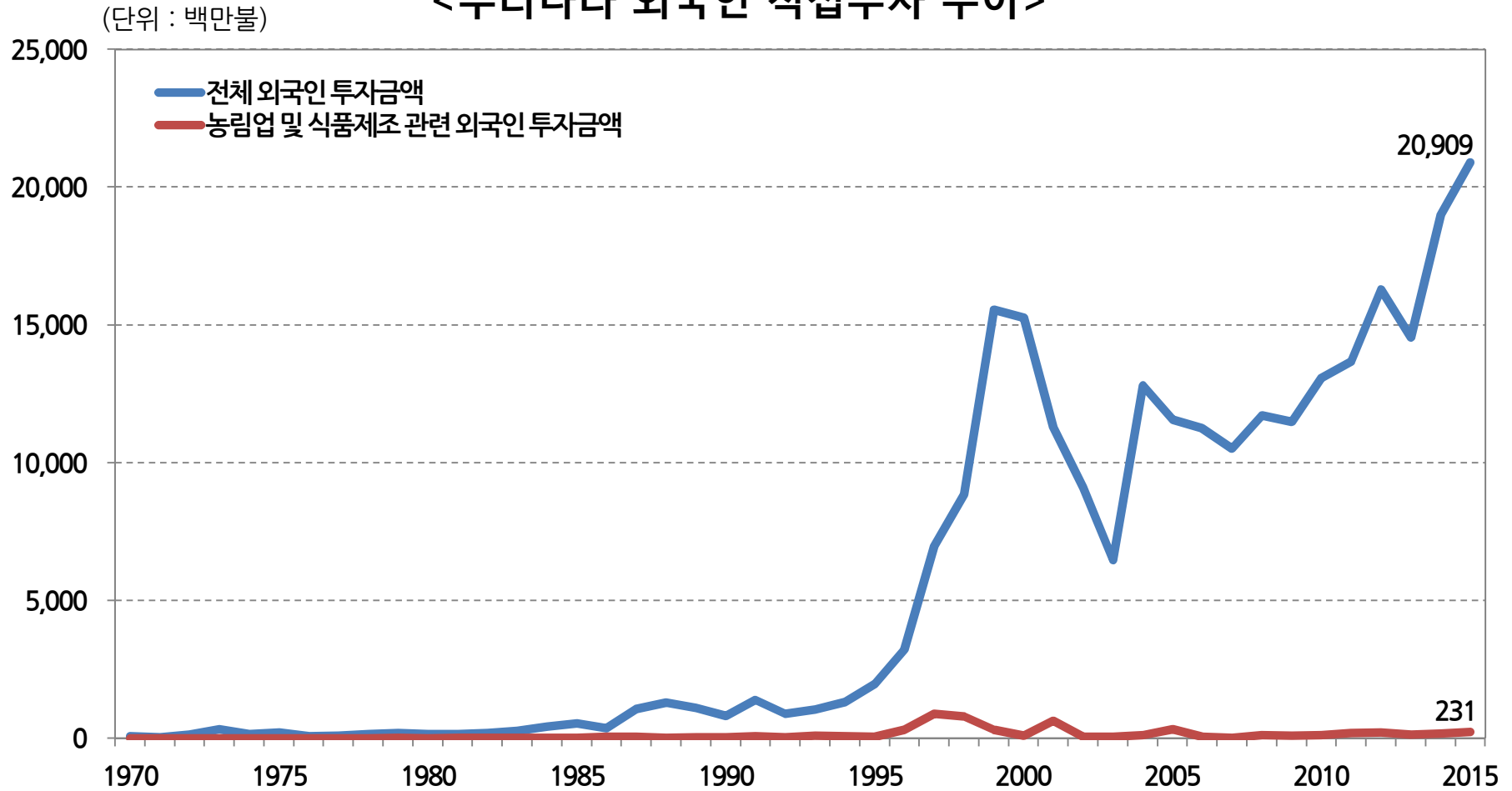
---

### ① 제조업은 어떻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나?

- **처음부터 수출 지향** : 국제경쟁력 있는 품질의 제품을 국제경쟁력 있는 가격에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
- **과감한 수입개방** : 수출을 해야 하는데 국내시장에서 경쟁은 당연
  - 시험 안 봐도 열심히 공부하겠다?
- **지속적인 고급화** : 맛과 안전 양면에서 고부가가치화의 여지가 큰 산업,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가장 고급화를 추구하는 산업이 농업
- **우리에게 부족한 역량(자본, 기술, 기계설비, 마케팅 능력, 브랜드)은 모두 외부에서 빌림** : 의존이 가장 빠른 자립의 길이다.
  - 모든 생산요소를 한꺼번에 셋트로 빌리는 방법 : 외국인투자 유치

## 2. 제조업의 성공요인을 벤치 마킹해야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주 : 신고금액 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 2. 제조업의 성공요인을 벤치 마킹해야

---

### ② 농업, 서비스업은 제조업이 이룬 것을 해 낼 의사도 능력도 없는가?

-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산업을 이룩해 낼 능력이 있는 국민이 왜 농업과 서비스업에서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농업 종사자들이 특히 더 게으르거나 무능한가?
- 60년대부터 농업에도 "제조업처럼 수출하라, 쌀 생산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마음껏 돈을 벌어라. 네덜란드, 덴마크의 농기업을 투자를 유치하라."고 했으면 오늘날 농업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 이제는 우리에게 부족한 역량을 외국에서 빌려오지 않아도 된다.
- 내 생업 영역에 더 역량 있는 경쟁자가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 산업의 낙후를 면하지 못하게 한다.

### 3. 농업도 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해야

---

#### ① 다양한 형태가 가능한 농업의 기업화

- 농민 개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경영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기업화**하면 된다.
- **계약재배** 등이 기업화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도 있다.
  - 농민은 토지, 노동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셈
- 가장 간명한 것은 경작 이외의 모든 경영책임을 떠 넘길 수 있는 기업의 투자유치
  - 가장 확실하게 생산물을 다 팔아주고(수출까지 해 주고), 확실하게 경작의 대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대부분의 기업은 원자재만 확보하기 위한 계약재배면 족하다고 생각하지 농업까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농업을 해보겠다는 기업이 있다면 정말 가당한 일이 아닐까?)
    - ex) 도울의 블루베리 농장, 다농의 요구르트 공장
  -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영농조합법인이든, 외국기업이든 무슨 상관인가?

### 3. 농업도 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해야

---

#### ② 농민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인가?

- 각자가 자신이 제공한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는 것
- 우리 농민은 토지와 노동을 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거두고 있을 뿐 : 기업이 농업을 하더라도 경작행위는 자연인인 농민이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대가는 우선적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음. **(임금채권의 우선권)** 만약 투자 유치할 때 농민들이 취업을 보장받는다면 농민소득은 더 증가할 수 있음.
  - 기업이 **자본, 기술, 마케팅, 경영능력, 브랜드** 등을 투입하여 전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에만 상응하는 대가를 가지고 갈 수 있을 뿐, 초과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대가도 가지고 가지 못함. (생산요소별 대가 수취의 우선순위에서 노동은 최우선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경영능력, 자본이 가장 후순위 임.)



### 3. 농업도 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해야

---

#### ③ 대기업은 안 된다는 것은 자충수

- 동부팜한농의 화옹반도 유리온실
  - 국비 87억원, 자부담 380억원 들여서 45,000평 아시아 최대 유리 온실
  - 연간 5,500톤의 방울 토마토 생산, 전량 수출

⇒ 수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결국 내수시장에 내어놓지 안겠느냐는 이유로 농민들이 동부의 농자재 불매운동을 벌여 결국 포기하게 만들어
- 농업법인 우일팜이 170억을 주고 인수함. 사실상 수출을 거의 못하고 국내 시장에 출하 → 우려하던 국내시장 잠식이 발생

### 3. 농업도 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해야

---

- 위 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생각해 볼 필요
  - 농산물 수출이 공산품보다 쉽다?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이 과제를 더 잘 해낼 수 있다?
  - **성공할 때까지 버티면 성공한다.** 누가 오래 버틸 수 있을까?
  - 동부팜한농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수출이 여의치 않을 때 내수판매를 막을 힘은 없다?
  - 수출이 여의치 않아 내수판매를 시도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어느 경우가 가장 막기 쉬울까?
  - 수출을 해 낼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길은 가장 역량 있는 세계적 기업이나 수입국의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 그런 의미에서 LG CNS가 새만금 바이오 파크에 외국 자본까지 끌어들이서 스마트 팜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무산시킨 것은 “이대로 살다 죽게 내버려 두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대로 살다 죽을 수가 없고 내수 시장을 점점 더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점

V. 결론 : 농업의 기업화의 진정한 의미

## 농업의 기업화의 진정한 의미

---

- 농업이 “보호”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 정부에 기대어서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다.
- 팔 대책 없이 생산하지 마라.
-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이루어야 한다.
- 농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면 된다.